

[방글라데시] 2022. 7월 경제 동향

(주방글라데시대사관)

〈경제 동향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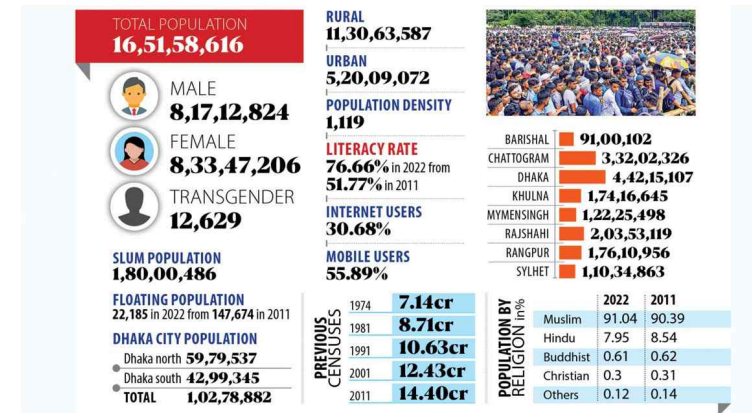
- ✓ **(주요 경제지표)** △2022 실시 인구조사상 방글라데시 총인구 1.65억명, 인구 성장률 1.22% △IMF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방글라데시 GDP 규모는 3,970억불로 세계 41위 △2021/22 회계연도 사상 최대 520.8억불 수출 달성 △외환 보유고 7.20 기준 397억불로, 2년만에 400억불 이하로 감소 △7.26 비공식 시장(kerb market)에서 달러당 다카화 환율은 109Tk 까지 절하, 1년 전 (84.80Tk) 대비 20% 이상 하락 △물가상승률은 6월 7.56%로 9년만에 최대치
- ✓ **(대외 차관/원조 동향)** △방글라데시 정부는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7.26 IMF 앞 서한을 통해 경상수지 보전과 예산 지원 및 기후변화 영향 대응 등을 위한 차관 요청 △2021/22 회계연도 개발 파트너들로부터의 대외차관은 100억불로 전년 대비 26% 증가(ADB 25.6억불, 일본 22.1억불, 세계은행 16.7억불, 러시아 12.2억불, 중국 10억불, 인도 3.24억불, AIIB 3억불)
- ✓ **(인프라 동향)** △중국은 다카-치타공간 고속도로 건설 및 고속철 건설을 G2G, PPP로 추진 제의 △한국건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2.1월~6월간 우리 기업의 방글라데시 수주액은 7.21억불로, 세계 8위 기록

1 주요 경제지표

□ 2022 인구조사 결과(인구 등 주요 사회지표)

- 2011년 이후 첫 실시된 인구조사 예비결과에서 방글라데시 인구는 1억6천5백만명, 인구 성장률은 1.22%로 조사 (2011년 조사시 인구는 1억4천4백만명)
 - 인구성장률은 2011년 조사에서 2.84%를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 추세
 - 남성이 8천3백만명 여성이 8천1백만명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카가 가장 높은 1.74% 성장률 기록
 - 8개 division(도) 가운데 다카가 4.4천만명 치타공이 3.3천만명, 라즈샤이가 2.2천만명
- 종교분포는 이슬람이 91.04%(2011년 90.39%), 힌두교가 7.95%, 불교가 0.61%, 기독교가 0.3% 차지

- 이혼율은 42%, 독신률은 28.65%
- 휴대폰 이용자들은 55.89%이며, 인구의 30.68% 인터넷 이용



□ 2021년 방글라데시 경제 세계순위 41위 진입(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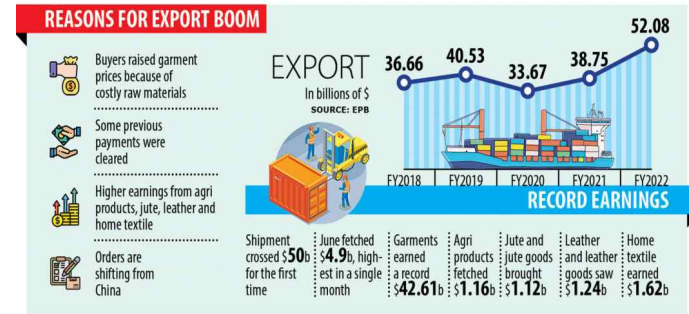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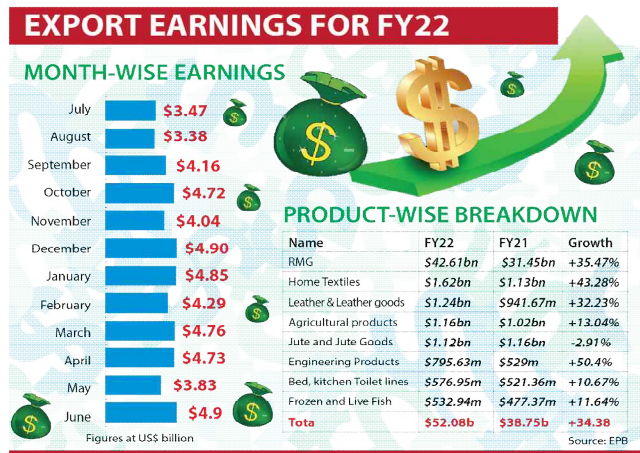
- Visual Capitalist가 IMF 통계를 활용해 7.12 발표한 2021년 세계 GDP 순위 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3,970억불로 41위**를 기록
 - 서남아시아에서는 인도(6위)와 방글라데시만 세계 50위 국가에 포함
- 방글라데시는 2020년에는 42위를 기록, 한 단계 상승했으나, 달러 기준 GDP 규모는 2020년 4,000억불 보다 감소했으며, 세계 GDP에서의 비중은 0.4% 차지

□ 2021/22 회계연도 사상 최대 수출실적(520.8억불) 달성

- 2021/22 회계연도 **수출은 520.8억불**로 전년(387.6억불) 대비 34.38% 증가, 역대 최대치 기록/이는 목표치인 435억불을 크게 상회한 수준
 - 한편, 방글라데시 정부는 2022/23 회계연도 수출 목표를 전년 대비 15% 증가한 670억불로 설정(이는 GDP의 35% 수준)
- 의류 수출이 426억불로 35.47% 증가했으며, 특히 EU, 미국 등 이외 소위 비전통시장 수출이 전년 대비 25.4% 증가한 63.7억불 기록(전체 의류 수출의 14.9%)
- 2021/22 회계연도 **11개월 동안 무역적자는 308.1억불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동 기간중 경상적자도 172.3억불 기록

- 한편,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2021/22 회계연도 무역수지 적자를 330억 불로 예상하면서, 2022/23 회계연도에도 무역수지 적자는 367억불 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중앙은행은 당초 2021/22 무역적자를 266억불로 전망)

※ 방글라데시 수입은 2021.7월~2022.5월간 815억불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으며, 경상 적자도 2021.7월~2022.5월간 172억불로 전년 대비 6배 이상 증가



□ 외환보유고와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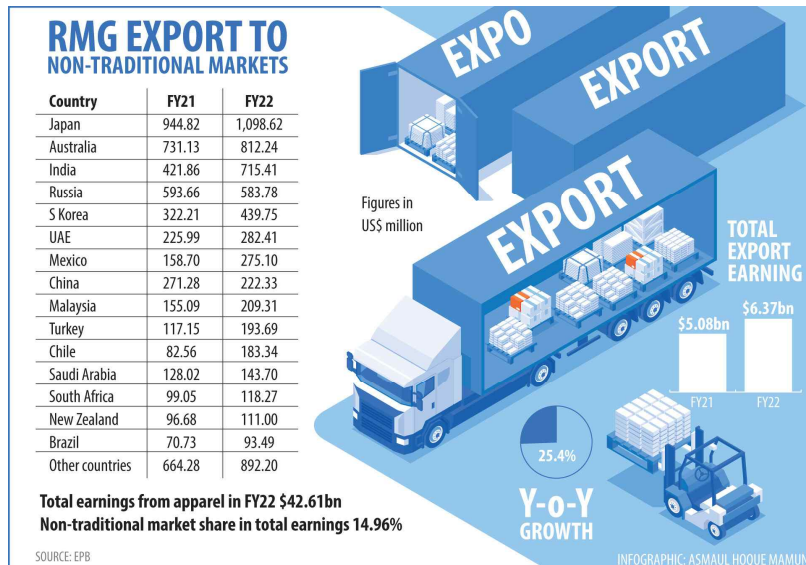
- 외환보유고는 7.20 기준 397억불로, 2년만에 400억불 이하로 감소했으며, 전년 동기 450억불 대비 큰 폭 감소
 - 수입액 5.4개월치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
- 방글라데시 정부는 외환보유고 안정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바, 하시나 총리는 7.25 긴급하지 않은 조달계획 중단과, 신규 프로젝트 결정시 신중한 검토, 공무원들의 정부예산 해외여행 금지, 사치품 수입 억제, 관용차량 이용 억제 등 다양한 조치 시행
- 한편, 환율은 7.26 비공식시장(kerb market)에서 달러당 역대 최고수준인 109Tk 까지 절하, 1년 전 84.80Tk.대비 20% 이상 하락

□ 해외노동자 송금액 감소

- 2021/22 회계연도해외노동자 송금액은 210.3억불로 전년(247.4억불) 대비 15% 감소
 - 동 금액은 팬데믹 이전인 2019/20 회계연도의 182억불 보다는 많은 수준
- 방글라데시 정부는 노동자 송금 확대를 위해 2.5%의 cash incentive를 지속 제공중이며, 지난 1년간 타카 환율 절하(달러당 1년전 84.80Tk에서 7월초 93.45Tk)가 송금 유인 요인으로도 작용중

□ 세수 증가

- 2021/22 회계연도 조세수입은 300,100 crore Tk(약 316억불)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으나 목표 330,000 crore Tk.에 30,000 crore Tk에는 미달 (2020/21 회계연도 조세수입은 263,886 crore Tk.)



□ 9년만에 최대 물가 상승률 기록

- 방글라데시 물가상승률은 6월 7.56%로 9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2021/22 회계연도 전체 물가상승율은 6.15%로 당초 목표였던 5.7% 초과

□ IT 수출 52% 증가

- 방글라데시의 IT 분야 수출은 2021.7월~2022.4월 10개월 동안 전년 동기 대비 (2.42억불) 52% 증가한 3.69억불 기록
 - 분야별로는 판매 서비스(콜센터, 데이터 프로세싱, 웹호스팅 등)가 2.78억불로 가장 큰 부분이고, 컨설팅 3.1천만불, 소프트웨어 5.1천만불, 하드웨어 정비 9백만불 등
- 증가 이유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정상화, 글로벌 기업들의 자동화 확대, 핀테크/비핀테크 분야 제품 수요 증가, 블록체인 기술 수요 증가 등이 지적
 - 주요 수출국은 미국으로 전체의 55%를 차지

2 대외 부채 및 외국의 원조 동향

□ IMF 조사팀 방문

- IMF 방글라데시 경제 조사 실사단이 7.12-22 방문, 방글라데시 거시 경제의 과제 로 △낮은 GDP 대비 조세비율 △부실금융 증가 △불평등 심화 등을 지적하는 한편, △ 낮은 외국인직접투자(FDI) △높은 의료비 개인지출 비중 △젊은층의 기술개발 기회 결여 등 지적
- 방글라데시가 요청시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에 따라 향후 수년간 68억불 규모의 차관 지원이 준비되어 있음을 표명하였으나, 방 정부는 현재로서는 차관 요청 계획이 없고, 필요시 지원 요청을 하겠다는 입장 표명
 - 실사단은 현재 방글라데시의 대외 부채는 GDP 대비 14.33% 양호한 수준이나 향후 악화될 가능성 지적
 - 방글라데시의 대외 부채는 약 500억불 규모이며, 방글라데시가 IMF로 부터 차입한 최대규모 차관은 2012년 9.87억불

□ 방글라데시 정부, IMF에 차관 지원 요청

- 방글라데시 정부는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7.26 IMF 앞 서한을 통해 경상수지 보전과 예산 지원 및 기후변화 영향 대응 등을 위한 차관을 요청하면서, 이를 위한 협상 개시를 요청

- IMF 아태담당국장은 방글라데시가 지속가능 성장, 특히 기후변화와 팬데믹 영향으로 부터 극복 지원을 위한 IMF의 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Trust(SRT)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요청하였다고 하면서, 구체금액은 협상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

- RST는 방글라데시 할당 쿼터 150% 또는 10억불 이내 규모로 지원되며, 조건은 20년 상환, 10.5년의 거치기간

- 한편, 언론은 방글라데시가 45억불 규모의 차관을 요청하였으며, 이 가운데 15억불은 무이자, 나머지는 2% 이하의 저금리 차관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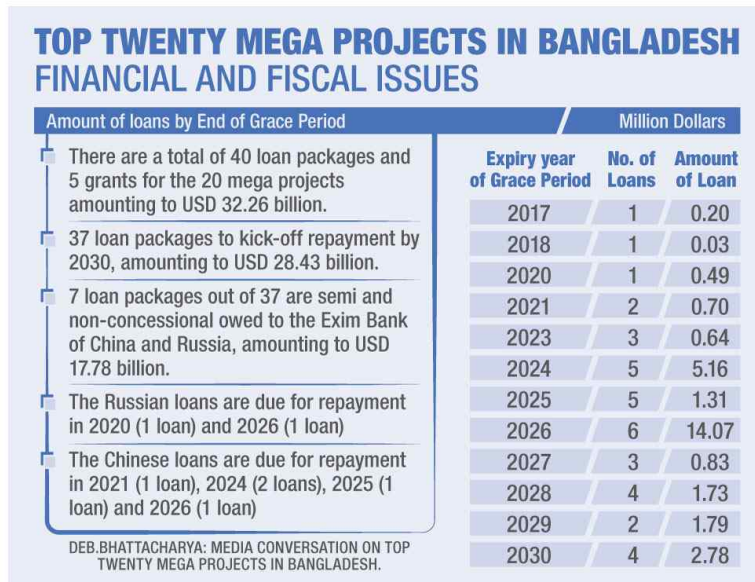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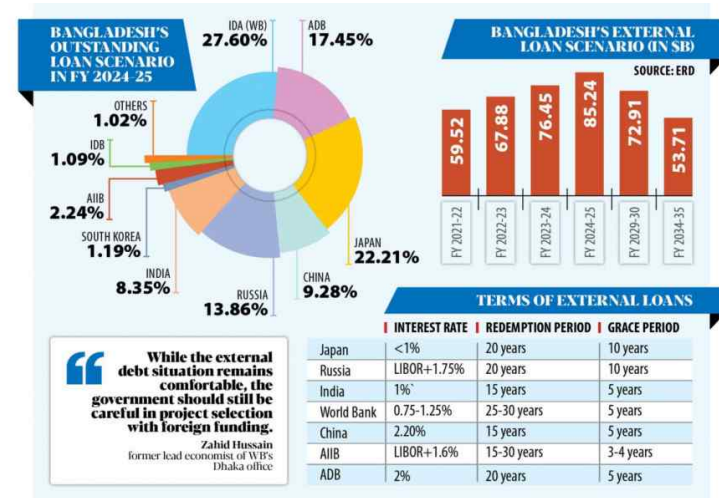
- IMF측이 동 차관 제공 조건으로 에너지 보조금 철회와 연료가격 이행체제 구축, 대출, 저축 금리 상한 폐지, 외환보유고 계산 메카니즘 조정, 세입 기반 확충, 금융분야 지배체제 강화 등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

- 동 차관 요청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유가 등 물가 상승, 수입액 급증에 따른 무역적자 확대와 이에 따른 외환보유고 고갈 등 여파에 따라, 외환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Kamal 재무 장관은 방글라데시 거시경제 상황이 위기상황이 아님을 강조

□ 대외 부채 증가

- 방글라데시 총 대외 부채(external debt)는 2021/22 회계연도 9개월간 85억불 증가한 932.3억불 기록
 - 동 기간중 방글라데시 민간부문 채무(commercial borrowing)는 63억불 증가한 230억불
 - 한편, 정부 전체의 채무(borrowing)는 2022.3월 기준 682.5억불로, 2021.6월 대비 53.7억불 증가했으며, 총 정부 채무의 83%는 장기 양허성 채무
- 한편, 전문가들은 2024-2026년간 20개 주요 프로젝트 관련 차관 상환시기가 도래할 예정이며, 700억불에 달하는 메가프로젝트 비용의 61%에 달하는 430억불이 러시아, 일본, 중국 등으로 부터의 대외채무라고 지적
 - 러시아가 36.6%, 일본이 35%, 중국이 21% 채무 차지하며, 20개 메가 프로젝트는 40개 차관 패키지와 5개 무상지원으로 구성되고 총 322.6억불
 - 이 가운데 284.3억불 규모의 37개 차관 패키지의 상환은 2030년경 시작될 예정
 - 37개 차관 패키지 가운데 7개 패키지가 중국과 러시아 수출입은행의 비양허성 차관으로 177.8억불 수준

- 러시아 차관은 2020년 1개와 2026년 1개 차관 상환 도래, 중국 차관은 2021년 1개, 2024년 2개, 2025년 및 2026년 각각 1개 차관 상환 도래
- ERD(대외관계청)에 따르면 **2021/22 회계연도 개발 파트너들로 부터의 대외 차관은 100억불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고, 사상 최대치를 기록
 - ADB 25.6억불, 일본 22.1억불, 세계은행 16.7억불로 최대 공여자이며, 다음이 러시아 12.2억불(Rooppur 원전 관련), 중국 10억불, 인도 3.24억불, AIIB 3억불 순
 - 한편 방글라데시는 2021/22 회계연도 20.1억불 채무 상환(2020/21 회계연도에는 19.1억불 상환)
- ERD 예측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대외차관 상환 부담은 2029-2030년 51.5억불로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
 - 2022/23 회계연도 대외부채 상환액은 27.8억불로 지난해 24.5억불 보다 다소 증가하나, 2029/30년 이후에는 조금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방글라데시의 **GDP 대비 대외채무는 2021/22 회계연도 18.1%**였으나, 2031/32년에는 13.4%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 ADB, 방글라데시 최대의 공여파트너

- ADB는 2021/22 회계연도중 총 20.8억불의 지원을 공약, 대방글라데시 최대의 공여기관이며, 이어서 JICA가 17.8억불, 세계은행이 15.4억불 공여 약속

- ADB는 2021.6월 코로나19 백신 구매를 위한 예산 9.4억불 지원했으며, 이 외에 방글라데시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5억불 차관 제공

※ 현재 방글라데시 정부는 중국 차관을 통해 3.9천억 Tk. 규모의 파드마대교 철도공사 추진중

□ 세계은행 방글라데시 재난 대응에 5억불 차관 승인

- 세계은행은 방글라데시의 홍수 등 재난 대응 지원을 위해 5억불 규모 차관 승인
 - 이는 방글라데시 내 14개 홍수 취약지역에 500개 이상의 다목적 보호소 설치, 접근 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이용 예정.

□ 2022년 상반기(1월~6월) 우리기업의 대방글라데시 수주 실적

- 721,441천불로 인니, 사우디, 미국, 베트남, 러시아, 말련, 폴란드에 이은 8위
- 태영건설 차토그램 지역 하수처리시설 건설(3.07억불), 한국도로공사 파드마대교 및 N8 고속도로 유지관리(각각 5.8천만불 및 8.3천만불), 삼환기업 파이라강 도로교량공사(3.8천만불) 등 /끝/

3 인프라 관련 동향

□ 중국, 다카-치타공 고속도로 및 고속철 PPP 추진 제안

- 중국 국영건설엔지니어링공사(CSCEC)는 최근 총리실 수석차관 앞 서한을 통해 다카-치타공간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PPP 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제안
- 당초 방글라데시 정부는 2013년 동 고속도로 건설을 계획하였으나, 2019년 하시나 총리가 동 계획 포기하고 고속철 건설방안 검토를 지시, 2021.10월 동 프로젝트를 공식 철회
 - 2013.3월 실시한 타당성조사에 따르면 217km 고속도로 건설에 약 25억불 소요 예상
- 교통부측은 방글라데시 교역의 80~90%를 차지하는 동 고속도로의 중요성을 고려, 동 프로젝트를 다시 살리는 문제에 관해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입장을 결정할 예정
 - 현재 다카-치타공간 평균시속은 30km이며, 이를 80km까지 늘릴 경우 수출 경쟁력이 7~8%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한편, 중국 철도공사(China Railway Group)은 철도부 장관 앞 서한을 통해 다카-치타공간 고속철을 G2G, PPP 모델로 건설할 것을 제안
 - 방글라데시 철도부 타당성조사에 따르면 224.64km의 고속철 건설시 다카-치타공간 55~73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총 건설비용은 93,350.93 crore Tk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
- 한편, 중국 국영 에너지공사(CEEC)는 5.22자 철도장관 앞 2개의 제안서를 통해 10개 프로젝트를 G2G, PPP 형태로 추진할 것을 제안, 철도부는 철도청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토록 지시